

목적 갖고 행하되 안될 때는 수시로 참회하라

봉화 도리천 암주 기후 스님(現 호주 시드니 정법사 주지)



기후 스님은 ... 1943년 경북 안동에서 태어났다. 1965년 범어사 금강암에서 출가해 1969년 통도사에서 사미계를 수지했다. 통도사 승가대학을 졸업한 스님은, 통도사·해인사 승가대학 강사를 역임했다. 기후 스님은 용화사·봉암사·통도사 등 제방선원에서 안거하고 경주 기림사에서 6년간 묵언정진하기도 했다. 1991년 호주 시드니에 정법사를 창건한 스님은 15년간 해외포교에 주력했다. 최근까지 봉화 도리천에 주석했던 스님은 다시 해외포교를 위해 시드니로 떠났다.

태백산이 두루 휘감은 봉화에는 구마동계곡이 있다. 이 계곡은 9마리 말이 한 기둥에 매여 있는 구마일주(九馬一柱)의 명당이 있다는 설에서 명칭한 이름을 가진 곳으로 경치가 수려하기 그지없다.

승용차로 이곳을 찾아가려면 중앙고속도로를 타고 제천IC에서 나와 영주 방면 5번 국도를 타고 영주까지 간 뒤, 36번 국도로 봉화를 지나 현동에 다다른다. 현동에서 다시 35번 국도로 접어들어 한참을 더 가면 백담마을이 나온다. 구마동계곡이 시작되는 곳이다.

백담마을에서 봉화 도리천을 찾아 들어가다 보면 태백산에서 발원한 계류가 20km에 걸쳐 흐르는 장관을 만난다. 자갈밭과 모래밭이 조화된 계곡을 따라 오르다보면 속세의 번뇌는 어느새 모두 계곡물에 씻긴 듯 사라져버리고 만다.

굽이굽이 계곡길을 얼마나 올라왔을까. 손전화의 안내나 표시는 사라진지 오래이다. 20여 분은 족히 더 지난 것 같다. 황토로 소담하게 지어진 인가가 보인다. 도리천이다.

“어서오시오.”
도리천 암주 기후 스님이 나그네를 반갑게 맞았다.

스님은 어린 시절에는 천연두에 시달렸고, 노년의 한자락은 위암으로 고통을 겪었다. 그러나 스님은 병고나 찾아올 때마다 자신을 키워갔다.

기후 스님은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말라. 몸에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기 쉽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병고로써 양약을 삼으라’ 하셨느니라”는 (보람삼매론)의 말씀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선지식이다.

기후 스님은 호주 시드니에 정법사를 창건한 이래 불법홍포를 위해 주력했다. 그곳에서 현지인과 교민을 상대로 간화선 등을 지도했다.

“스님, 간화선이 요즘 붐입니다. 스님께서는 외국에서 직접 지도도 하셨는데, 간화선 대중화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나그네가 물었다.

“간화선 대중화는 선방에서의 수행과 다릅니다. 그런데 구호만 있지 어떻게 하겠다는 방법론이 없어요.”

기후 스님은 호주사람들은 간화선이 제시하는 “이렇듯” 등 명제를 지니는 것에 상당한 부담감을 느낀다고 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려 선을 하려는데, 화두가 그들에게는 또 하나의 짐으로 느껴진다는 말이다.

“무심(無心)으로 근원을 삼으라 했습니다. 이는 분별심이 끊어진 시비 없는 세계를 말합니다. 무주(無住)는 머무름이 없는 생각을 근원으로 삼으라는 말입니다. 무주는 집착 없이 마음을 내라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살아가면서 마음을 내는 것은 혜(慧)에 가깝습니다.”

기후 스님은 “간화선이 무심·무주를 강조하지만 그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 어떻게 간화선을 해야 할지 제시점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스님은 평생 ‘무(無)’자 화두를 들고 있다고 했다. 기후 스님은 “전생의 선군이 미약한 지 나는 몸이

약하게 태어났고 의지도 약하다”며 “나는 아직도 화두를 타파하지 못했다”고 웃으며 말했다. 이어 “깨달으려면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굉장한 체력과 신념,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후 스님은 “‘유무(有無)의 무로서 무를 인식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조주무자 화두에서 ‘애 불성이 있다, 없다’라고 했을까라고 생각한다. 이미 말씀에 걸리고 관념에 사로 잡혀 짐작을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상대적으로 분별하는 것이 정당한 방법은 아니지만 그것 밖에 길이 없을 때가 있다. 범부의 입장에서선 화두 챙기는 것만으로도 열심히 사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화두공부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명제를 통해 창의적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주는 공부입니다. 뭔가 창조적으로 세상을 살려는 사람, 사업을 하던 사람이 실패의 이유를 찾을 때 그 원인을 규명하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살아가려는데 있어 매우 실천적이고 현실적인 해답을 주는 방법입니다.”

기후 스님은 “사업과 인생을 함께 성공할 수 있는 명제를 던져주는 것이 현대인의 화두공부법이다”라

얼굴의 곰보는 여자 가까이 말라는 뜻

위암으로 자만했던 삶 다시 돌아보게 돼

남 탓만 하면 내 고통만 부풀릴 뿐

시비·집착 버리고 자신에서 원인 찾아야

며 “화두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인을 규명하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스님은 “수행을 하던 무엇을 하던 목적 의식만큼은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목적 없이 맹목적으로 하다가 어느 순간 힘이 빠져버립니다. 회의가 들지요. 공부를 하다가 안될 때는 참회를 해야 합니다. 목적(사원)과 함께 참회를 정진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합니다.”

기후 스님은 “유회를 믿는 것이 참회의 전제 조건이다”라고 말했다. 유회를 믿지 않으면 절대 참회가 제대로 될 수 없다고.

스님은 “근원에서 보면 참회의 대상도 본질도 없으나 우리는 미원에서 완전을 지향하는 중이다. 때문에 참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후 스님은 “진정성을 갖고 성실하게 나와 남의 상생·공존을 위한 삶을 산다면 남을 위해 봉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몸에 체득되면 말·행동이 저절로 따르게 돼 있다. 그러다보면 저절로 업장이 소멸된다”고 설명했다.

전생의 자신을 알고 싶으면 지금 자신의 모습을 살펴볼 것이며, 내생의 자신의 모습이 궁금하거나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모습을 보라[欲知前生事 今

生受者是 欲知來生事 今生作者是.] (법화경)

기후 스님은 “내 얼굴이 이렇게 (곰보)가 된 것도 여자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조용하게 잘 지내라는 전생의 메시지였다”고 말했다. 스님은 자신의 콤플렉스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 어린 시절 그토록 자신을 괴롭히던 천연두를, 얼마 전까지도 스님의 생명까지 위협했던 위암은 어떻게? 기후 스님이 말했다.

“조금 살만하고 또 조금 수행의 힘이 생겼다고 자만하고 나부대 맘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기후 스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철두철미하게 자신을 반조하고 있다.

스님은 “힘이 생겼을 때는 늘 조심해야 한다. 돈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다. 그러나 그것을 자제하기란 어렵다. 나도 그 세력에 속았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지만 그 원인을 규명해서 따져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은 천연두나 위암에 걸린 것을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만약 맘이 생기지 않았다면 여지껏 시드니에 남아서 시시비비에 놀아났겠지요. 그랬다면 맘이 생긴 이후 7년간의 수행을 통한 지금의 안목도 없었을 것입니다.”

기후 스님은 병원에서 수술 후 지금까지 아무 치료도 받지 않고 있다. 최근에 다른 일로 병원을 찾은 길에 몰으니 “위는 괜찮아졌다”는 답을 들었다.

스님이 처음부터 항암치료를 거부했던 것은 아니었다. 퇴원 후 약을 받아 먹었다니 금방 발에 물집이 잡히고 흐물거렸다. ‘아 이 약이 이렇게 무섭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기후 스님은 “내가 이렇게 독한 약을 계속 먹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생각하다가 그냥 그만 두었다”고 말했다. 당시 병원에서 스님에게 치료를 받으면 70% 회생하고 약을 안먹으면 30% 밖에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했다. 스님은 30%의 회생을 택했다. 대신 수행정진을 쉬지 않았다.

기후 스님이 완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수행한 것은 아니었다.

“처음에는 ‘빨리 가자’ 이 세상과 인연이 다 됐는데 출가자가 돼서 남한테 짐이 되고 그러면 안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스님이 돼서 선방에서 공부도 해 보고, 강원 강사도 역임해보고, 해외에서 포교도 하고, 주지도 해왔으니 슬며시 미련이 별로 없었습니다.”

스님은 “그 마음이 회생의 단초가 됐다. 미련(집착)을 버리니 암도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기후 스님은 “콤플렉스는 남과 비교하는데서 나온다. 비교하면서 열등의식을 갖게 되고 마음이 비틀리니 스트레스가 된다. 이것이 고통의 원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남의 모습을 닮으려 하지 말고 내 마음의 부족함을 알고 그것을 채우는데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기후 스님은 “사람들이 콤플렉스에 시달리는 것은 원인을 고민하고 살피기보다, 사회·지도자 등 남 탓에 익숙하기 때문이다”라고 진단했다.

스님은 “자신의 삶의 한 결과를 두고 내내 남 탓만 한다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자신감이 사라지는 것은 당연하다”며 “병을 얻든, 고통이 사무치든 그 근원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장사흥왕과 사업번창성공 축원불공 마쳐!



부처님 제1의 비방법구

경기가 너무 없어, 장사가 너무 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안좋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고,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 건물 한지붕 밑에서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장사가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개업 선물로도 품격!

자리를 보면 중생의 지혜도 부족하지만 터도 세고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 손님의 마음을 흔들며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더라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첫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사업장의 화를 미리 쫓고 잡귀를 물리쳐 사업성공의 수호신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 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 수 있다.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장사흥왕 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금니로 제작되어있어 품위가 있고 가로8cm 세로3.5cm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에 걸어 놓으면 좋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사할스님 20%할인) 전화: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동협계좌: 032-12-193445 예금주: 이상하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신앙, 기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개소, 이음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관방, 각종스포츠센터,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용점,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 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평생부자지갑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 마쳐!!

소중한 남편과 가족친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와 자녀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 법구에는 세상은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요시 한다. 돈의 집인 지갑 역시 연이 되면 돈이 동서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을 들어오지 않고 고통만 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묘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다라니 복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복이 들어오게 하는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 있으며 음화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소재는 고급스 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 도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사용하는 중생이 금전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을 마친 복지갑으로 선물로도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다. 남성용 반지갑 65,000원, 여성용장지갑 98,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전화: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동협계좌: 032-12-193445 예금주: 이상하

2012년 나가는 삼재조심 쥐띠, 용띠, 원숭이띠

제일 힘든 나가는 삼재화를 미리 쫓는 영험 삼재소멸 금강저



삼재무탈하게 축원불공마쳐 삼재화를 소멸 승리하는 비방

2010년 드는 삼재 2011년 묶는 삼재 2012년 나가는 삼재 용띠, 쥐띠, 원숭이띠 중생들은 2012년 말까지 3년간 삼재기간으로 각별히 조심하고, 공덕을 쌓으며, 자중 자애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내는 것이 좋다. 지난 소띠, 뱀띠, 닭띠 삼재기간 중에 삼재화로 건강으로 고통받고 삼재판재수로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며, 삼재액운으로 사업이 어려워지고 재산을 소진하며, 가정이 파탄되고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는 일이 없으며 갖가지 어려운 고통속에 삼재화를 당하는 중생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아왔다.

것이 안전하다. 불가에서는 삼재기간 중 삼재화와 삼재액운을 소멸하는 비방으로 불자들에게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저를 몸에 지니고 다니게 한다. 또한 삼재기간중 삼재소멸 비방을 잘하고 자중자애하며 공덕을 쌓으면 삼재기간에도 크게 성공하는 중생들도 많이 있다. 금니로 제작된 삼재소멸금강저는 삼재기간 중 무사무탈하고 승리하게 점안식과 축원불공을 마치고 전화로 신청하면 금강저를 보내 드림지갑 속에 평생 넣고 다니면 된다.

가격: 45,000원 (사할스님 20%할인) 전화: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동협계좌: 032-12-193445 예금주: 이상하

‘마음씨’ 잘 살펴야 만사형통



을 살피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자신을 고통하는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사유·관찰하다보면 고통과 스트레스도 곱담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스님은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은 고택멸도(苦集滅道) 사성제의 가르침이다. 괴로움이 성스럽다는 것이다. 나는 어쩌서 고통을 성스럽다고 했는지를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괴로움 속에는 즐거움이 될 수 있는 요소가 잠재돼 있다. <기신론>에도 ‘고통은 잠을 의지해서 일어나고, 잠은 늘 고통과 함께 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참고 고통 가운데 하나를 없애고 하나를 드러내면 그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것들의 속성을 잘 간파하게 되면 언제나 전화위복의 계기가 됩니다.”

기후 스님은 “사람은 살아가면서 그 때 그 때 풀기 어려운 매듭들이 생기 마련이다. 그때마다 힘들고 괴로운 상황들을 매물차게 물어 부치지 말고 그 속 내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 과정 속에 삶에 도움이 되는 메시지들이 들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언제든지 과정과 결과에 대해 곱담게 생각해야 합니다. 즐거움이든 괴로움이든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부처님은 처음도·과정도·결과도 좋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불자들이 삶을 살아가는 올바른 자세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녹록하지 않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목적만을 향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고 있다. 스님은 이런 세태를 변화시키는 것 또한 불자들의 몫이라고 했다.

괴로움 속에는 즐거움이 잠재 돼 있어
진지·고통 속성 알면 전화위복 계기

지혜 있고 없고에 따라 삶의 자세 달라져
큰희망 갖고 적극적으로 살아야 지혜인

“세상살이에는 괴로움도 있지만 그 속에는 반드시 즐거움도 있습니다. 선정이 바탕이 돼야 지혜라는 생활의 철학이 나옵니다. 고요하게 살피는 선정력과 사유가 없으면 절대 옳은 지혜가 나오지 않습니다. 나온다고 하더라도 마른 지혜입니다. 참 지혜는 촉촉해야 합니다.”

기후 스님은 “우리의 인생은 길지 않으나 삶의 길은 결코 평탄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래서 나약하고 지혜가 없으면 그 걸림에 걸려 넘어지고 만다는 것. 그리고 결코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미래의 불행에 미리 겁먹고 소극적으로 살아가려는 것은 지혜가 없기 때문”이라며 “큰 희망을 갖고 적극적으로 살아야만 참 지혜가 나온다”고 강조했다.

기후 스님은 “마음씨가 만법의 근본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근본대로 한마음을 어떻게 잘 갈무리하는지가 중요하다. 그런데도 불자들은 마음



봉화 구마동계곡에 기후 스님의 토크 도리천 대문에는 당선은 누구인지 살펴보라는 당부의 글이 써 있다.

씨를 간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 낸다[一切唯心造]면서도 정작 한 생각을 일으키는 ‘마음씨’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여깁니다. 1초에도 수만 가지의 생각이 머리를 지나는데 그 생각의 무게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생각을 함부로 하지 않으려면 ‘마음씨’부터 잘 살펴야 합니다.”

나그네와의 만남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기후 스님은 다시 ‘본래 머물던’ 호주 시드니 정법사로 떠났다. “언제 다시 기후 스님을 뵈 수 있을까” 싶어, 나그네가 물었다.

스님이 답했다. “내일 떠나더라도 아무 예약 없이 갈 준비를 하고 살아요. 죽을 준비가 돼 있는 거지요.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 살다 떠나면 다음에는 더 큰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계신 자리에서부터 최선을 다하십시오.”

조동섭 기자 cestana@hyunbul.com

현각 스님의
禪心으로 만나는 세상



동국대 선학과 교수

내가 몇 살이더라

누구나 경험한 일이다. 작열하는 태양이 눈부시게 비치는 밖에 있다가 집 안으로 들어오면 어둡게 느껴진다. 집안의 사물이 선명하지 않아 눈을 비비며 집가를 잘 보려고 하기도 하고 책을 들추면 더더욱 아른거리기 일췌이다.

눈이 바깥의 빛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빛이 너무 많은 곳에서는 눈동자가 축소된다. 반면에 어두운 곳에서는 눈동자가 확대된다. 어둠 속에서는 조리개를 더 열어야 하지만 빛이 있는 곳에서는 조금만 열어도 된다.

밖에 있다가 안에 들어가면 아주 어둡게 느껴지는데, 그럴 때 잠시 앉아서 기다리면 점점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을 체험한 적이 있다. 우리의 눈이 적응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우리는 여러 생 동안 햇빛이 눈부시게 반짝이는 바깥세상에서만 살아왔다. 그래서 내면의 세계에 들어가는 법을 망각했으며, 그곳에서 자신의 눈을 어떻게 적응시켜야 하는지 잊어버렸다.

내면의 세계를 만조해 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상실된 내면세계의 진주를 찾는 작업이 수행이라고 본다. 불성을 찾는 작업이고 달리 말하면 우리 몸에 갖추어져 있는 장엄스런 본래 부처님을 찾는 것이다.

수행에 전념하고 있던 수도승이 있었다. 그에게는 몇 년 몇 월 몇 일이란 개념이 없었다. 오직 불도를 닦는 것이 지상의 목표였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길손이 찾아 들었다. 길손이 물었다. “스님은 이곳에서 얼마동안이나 수행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몇 살 이신지요?”라고 말을 건넸다. 수도승은 대답했다. “내 나이 몇 살인지 모르고, 낙엽이 지니 가을이 왔음을 알뿐이네[山僧不解數甲子 一葉落知天下秋].” 참 소중한 그시없는 말이다.

어떤 이들은 몇 안걸을 낳다고 안거의 수에 집착하는 사람들도 있다. 혹은 절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에 일념 하는지 삼천 배라는 숫자에 매여 수를 세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다. <금강경>을 독송하면서도 몇독을 했다고 수를 앞세우기도 한다.

또 <보문품>을 독송한다면 경전 속 깊은 뜻을 놓치는 경우가 눈에 띈다. 이리다 보면 수박 겉핥기 식이 될 수도 있다. 어둠 속에서 조리개를 더 열어야만 안에 물건을 선명하게 볼 수 있듯이 우리가 수행을 한다는 것은 안거증이나 숫자 세기가 아니라 동면하고 있는 씨앗을 발아시켜 싹틔워 꽃피우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작업이다.

그렇게 회귀하는 극락세계가 어디에 있는가. 그렇게 두려운 지옥은 어디에 있는가. 멀리 있지 않다.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 극락세계나 지옥은 장소가 아니라 정신적인 영역이다. 극락세

계나 지옥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 선에서는 유심정토(唯心淨土)를 강조한다. 오직 마음속에 정토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숨 쉬고 있는 이곳을 예토(穢土)라고 규정하고 정토타량만 한다면 내 주변 모두가 뒤틀린 세상이 되고 만다. 내 수행에 있는 것은 오직 지금이 삶뿐이다. 왜 내 수행에 있는 것을 소홀히 여기는가. 지금이 제일 소중한 것이다.

지금 세상을 현겁(賢劫)이라고 한다. 범어로는 Bhadra-kalpa이다. 바드라는 ‘아름답고, 축복받고, 사랑스럽다’는 뜻이다. 장엄겁은 과거 세상이고 성수겁은 미래세상을 말한다.

산행을 하다보면 숲속에서 산새들의 이동을 본다. 하늘을 보면 기러기의 행렬을 보기도 한다. 새들에게는 성스러운 경전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그들은 짐승을 알고 있다. 짐승을 지키지 않으면 어떠한 재앙이 닥칠지도 알고 있는 듯하다. 산새들도 엄연한 짐승 속에 이동

바깥세상보는데 익숙한 우리

내면 세계 들어가는 방법 있어

수행은 여유 갖고 내면반조하는 작업

예토라 한탄 말고 정토라 믿고 닦아야

을 한다. 동물(animal)은 anima에서 나왔다. 이 말은 단순히 살아 있음을 뜻하는 말이다.

혹은 종교학에서는 정령(精靈)이라고도 한다. 동물과 동의어인 inhuman이 있다. 이 말은 정상적인 인간의 자질이나 호의가 부족한 것이라고 풀이하고 있으나 인간의 시각으로 동물들에게 가혹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나 않는지 깊은 성찰이 따라야 할 것이다.

한 해를 마무리 하면서 살펴 볼 것이 있다. 그것은 각각의 내면의 세계를 얼마나 반조해 보았느냐는 것이다. 우리 마음이 관성(慣性)의 법칙에 따라 행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한다. 예전의 그릇된 습성이나 가치기준을 점검할 줄 모르고 타성에 젖어 헤를 거듭하다 보면 영영 내면의 진주를 찾을 길이 없다.

세월 가는 줄 모르며 나이도 잊고 정전에 몰두한 산승의 마음자세가 잔잔한 물결로 밀려오는 것은 비단 필자만의 일은 아니라고 본다.

한 해가 얼마남지 않았다. 이런 세교가 되면 모든 것이 아쉬움으로 남고 지난날의 일들이 후회로 밀려오기도 한다. 이제 모든 것 훌훌 털고 일어나 아쉬움이 없는 새해맞이 채비에 몸과 마음을 기울여야 한다.

찬덕불교

찬덕불교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책임 시공합니다.

전선(케이블) -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 안산 월강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 도선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 흥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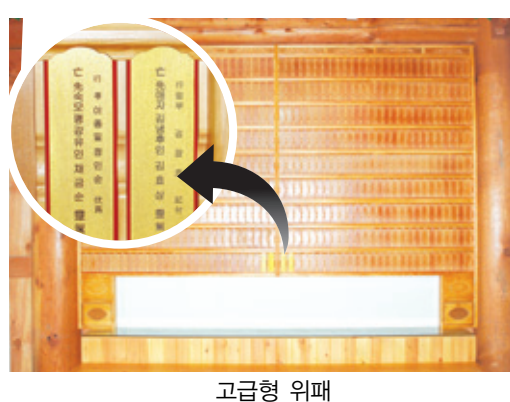
윤장대 인등



용주사 LED 인등



보급형 위패



고급형 위패

아름다운등



팔각점등영가등



만월영가등



공 단 등



오색공단등



만 월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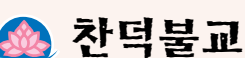


종 등

신상품 찬덕 LED 전구



1년 365일,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98원/1kwh



찬덕불교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영2리 261-6 / 전화: 031) 792-6288, 794-4055 / 팩스: 031) 794-6288

www.chanduk.com

취급품목: 연등·주름등·전선시공·영구위패·LED인등·LED전구

* LED 전구 :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불빛이 사뭇으로 퍼져 화려한 빛기가 특징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사설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